

**국제개발협력NGO 책무성 자가진단**  
**2024년 진단 결과분석 보고**

참여 연구자(KCOC)

경영기획부 맹진영 부장

경영기획부 조아름 과장

경영기획부 양정윤 대리

<목차>

1. 국제개발협력NGO 책무성 자가진단서 소개	3
2. 2024 자가진단 참여 단체 분석	5
가. 자가진단 참여 단체	
나. 참여단체 분석	
3. 자가진단 결과 분석	11
가. 전체 책무성 이행결과 분석	11
나. 부문별 책무성 이행결과 분석	11
다. 자가 종합평가(정성평가) 결과 분석	29
4. 종합	36
* 별첨 (2024년 책무성 자가진단 참여 단체 소개)	39

## 1. 국제개발협력NGO 책무성 자가진단서 소개

국제개발협력NGO 책무성 자가진단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NGO의 책무성 이행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로써, 2013년 개발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국제개발협력NGO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에 활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국제개발협력 NGO는 책무성,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현장에서 책임있는 활동을 지속하고, 후원자들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는 바, 많은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운영과 사업에 걸친 폭넓은 책무성 이행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본 자가진단서를 활용하고 있다.

본 진단서는 국제개발협력NGO 행동규범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책무를 실천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점검하고 있다. 진단서는 총 5가지 부문 - 조직, 사업, 회계, 정보공개, 임직원 행동윤리 - 에 대해 질의한다. 조직부문은 단체가 내/외부로 합법적인 구조를 갖추어 운영하고, 조직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책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사업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통용된 국제개발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단체의 사업으로 인해 현장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도출하고, 현지 주민이 참여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회계 부문은 관계 법령 및 공인된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모든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 공시/공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내부 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책무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정보공개 부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공개하며,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또한, 모금/홍보 활동 시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에 허위나 과장이 없고, 정보의 공유와 공개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활동 자원의 중복투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협력함으로써 책무를 실천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에서는 단체의 임직원이 개발협력 사업 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공통된 기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책무를 실천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진단서는 총 8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의 규모, 적용 세법,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최소 59개에서 최대 86개의 주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질의하고 있다. 문항 응답방식은 두 가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예/아니오)과 이행 수준(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 수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부점검항목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진단에 참여하는 단체는 이 다섯 가지 영역의 세부 주제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단체의 책무 이행 여부 및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KCOC는 자가진단서 첫 개발 이후 2014년부터 회원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매해 자

가진단서를 통해 단체의 조직과 사업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KCOC는 매해 제출받은 응답지를 취합하여 그 해의 개발NGO의 책무 이행 수준을 분석 및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총 612개의 단체가 자가진단 이후 결과를 제출하였다.

본 진단서는 개별 단체의 책무성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진단서가 아니다. 단체 스스로 내부를 점검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도구로, 단체 스스로 조직을 점검하고 책무성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과 세부 이행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며, 이후 이행 노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전반의 책무성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2024 자가진단 참여 단체 분석

### 가. 자가진단 참여 단체

올해도 KCOC는 회원단체에게 책무성을 자가진단할 것을 독려하였다. 4월부터 6월 까지 약 3개월간 응답을 받았고, 총 45개 단체가 진단에 참여한 후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중 회원단체 응답은 40개(회원단체의 약 30%), 비회원 단체의 응답이 5개로 확인되었다.

5개의 비회원 단체의 응답은 올해 KCOC 신규가입을 희망하여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와 온라인을 통해 책무성 자가진단 실시 소식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이다. 총 45개의 참여 단체에서 진단에 직접 참여한 임직원은 총 19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한 45개 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1. 2024년 자가진단 참여 단체]

참여년도	참여 단체	총수
2024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굿뉴스월드, 굿파트너즈, 굿피플인터내셔널, 글로벌발전연구원, 글로벌케어, 글로벌호프, 대진국제자원봉사단, 더프라미스, 덴탈서비스인터내셔널, 로즈클럽인터내셔널, 로터스월드, 리훅, 밀알복지재단, 비에프월드, 사랑광주리, 사랑글로벌프렌즈,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시아포커스, 아시아프렌즈, 아프리카미래재단, 엔젤스헤이븐, 위드, 유니월드인터내셔널, 지구촌구호개발연대, 지구촌나눔운동,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캄보디아가나안농군학교, 캠프, 컨선월드와이드한국, 태화복지재단, 팀앤티, 프렌즈, 플랜한국위원회,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한국해비타트, 한국헬프에이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 사랑밭, 헤퍼코리아, 희망의다리	45

KCOC가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처음 펼쳐낸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612회(누적)의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가 수집되었고, 2022년도부터 최근 3년간 책무성 자가진단 응답 수는 총 161개(누적)이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이다.

[표2. 최근 3년(2022~2024년) 참여 단체]

참여횟수	참여 단체	총수
3회	굿네이버스, 굿뉴스월드, 굿피플인터내셔널, 글로벌케어, 글로벌호프 대진국제자원봉사단, 덴탈서비스인터내셔널, 로즈클럽인터내셔널,	25

	로터스월드, 밀알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시안프렌즈, 아프리카미래재단, 엔젤스헤이븐, 위드, 유니월드 인터내셔널, 컨선월드와이드한국재단, 태화복지재단, 플랜한국위원회,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한국해비타트, 한국헬프에이지	
2회	국제사랑의봉사단, 굿파트너즈, 글로벌비전, 데일리다일, 더멋진세상, 비에프월드,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시아포커스, 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지구촌구호개발연대(GRAS), 지구촌나눔운동, 사랑글로벌프렌즈, 코익스, 태평양아시아협회, 캄보디아 가나안 농군학교(지부)	17
1회	CTS Interntional, 가정복지회, 가정복지회 글로벌,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 국경없는교육가회, 국제보건애드보커시,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WTIT), 굿월드자선은행, 글로벌발전연구원, 글로벌이너피스, 나누리병원, 더프라미스,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 따뜻한하루, 리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북스인터내셔널, 비전케어, 사랑광주리, 삼동인터내셔널, 새빛, 세계교육문화원, 아드라코리아,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월드디아코니아, 월드미션프론티어, 월드비전, 월드샤프, 월드쉐어, 월드휴먼브리지, 위드헤브론, 정해복지, 지구촌공생회,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캄보디아 KMSC, 캠프, 팀앤티, 파우아교육협력재단, 평화삼천, 프렌드아시아, 프렌즈, 피스원즈코리아,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목회지원센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제이티에스(JTS),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헤퍼코리아, 호이, 홀트아동복지회, 희망의다리	52
<b>총 참여단체 수</b>		<b>94</b>

## 나. 참여 단체 분석

책무성 자가진단서에서는 총 다섯 가지 부문의 책무성 이행정도를 확인하기에 앞서, 소속단체의 법적 성격과 규모, 이해관계자의 구분, 사업 활동국가에서의 단체 운영형태 등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체가 자가진단을 하기 전, 단체의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면서 올해 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올해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한 총 45개 단체 중 해당 부분을 미응답한 1개 단체를 제외한 총 44개 단체의 규모와 성격,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단체 규모

먼저 참여 단체의 규모를 상근직원 수로 구분해보았다. 응답에 참여한 총 44개 단체 중 상근직원이 5인 미만인 단체가 전체의 25%, 5인 이상 10인 미만인 단체가

23%,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단체가 25%, 30인 이상 50인 미만인 단체가 5%, 50인 이상인 단체가 전체의 2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응답단체의 직원 규모의 분포는 30인 이상 50인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으며, 상시근로자 수 10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인 미만인 단체와 10인 이상인 단체의 참여율이 각 절반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인 이상 단체 참여 비율이 올해 23%로 상승하였지만, 이는 전체 참여단체의 감소로 실제 응답 단체는 전년보다 1개 단체 줄어 10개 단체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이 중 8개의 단체는 최근 3년 연속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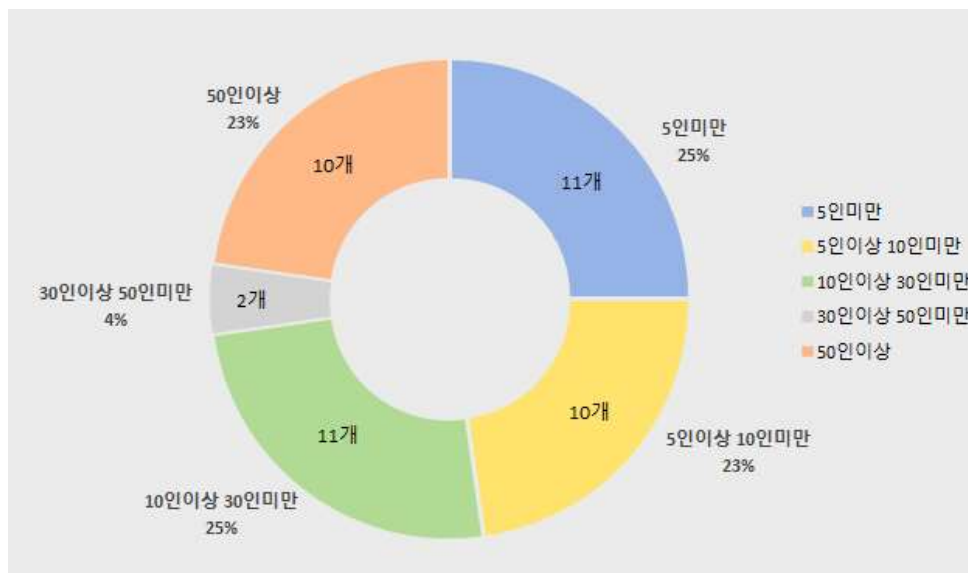


그림 1. 참여단체 규모

## 2) 법적 지위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관계법상 구분을 살펴보았다. 이는 소속단체가 설립근거법/세법/기부금품법 상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단체에 요구되는 책무사항과 규제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다 정확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체들의 응답을 취합한 결과, 설립근거법 상으로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체의 47%, 기부금품법과 관련해서는 응답단체의 대다수인 93%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해당 결과는 단체 응답에 따른 구분으로 실제 단체의 성격과는 다를 수 있다.

[표3. 관계법상 구분]

구분	단체 성격	응답 개수	비율
설립근거법 상 구분	비영리법인(민법)	34	51%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3	20%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5	8%
	공익법인(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3	20%
	기타(무응답)	1	1%
<b>합계 (중복응답 가능)</b>		<b>66개</b>	<b>100%</b>
세법 상 구분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28	47%
	공익법인 (상증세법)	26	43%
	사회복지법인 (상증세법)	5	8%
	기타 (무응답)	1	2%
<b>합계 (중복응답 가능)</b>		<b>60개</b>	<b>100%</b>
기부금 관련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	42	93%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1	2%
	해당없음/미답변	2	4%
<b>합계</b>		<b>45개</b>	<b>100%</b>

※ 단체 응답에 따른 구분으로, 실제의 단체 성격과 다를 수 있음.

### 3) 주요 활동국가 및 현지 운영 형태

다음으로는 올해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국가와 현지 운영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가진단에 참여한 45개 단체 중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개 단체를 제외한 총 43개 단체의 응답을 취합하였다.

총 43개 단체는 전 세계 84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로 캄보디아(20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18개)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어서 몽골,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13개, 네팔, 방글라데시, 케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12개로 그 다음으로 많은 활동국가로 꼽혔다.

또한 단체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로컬NGO 등록/INGO 등록/현지 파트너십/기타 형태 총 네 가지의 구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325건(중복)의 운영 형태에 대한 응답이 집계되었다. 이 중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NGO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103건, 로컬NGO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63건, 기타 형태의 사업 운영이 33건으로 확인되었다.

단체별로의 응답을 살펴보면, 같은 단체에서도 활동 국가에 따라 현지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하며 이는 각 국가마다 한국NGO가 개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차이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 응답단체의 주요 활동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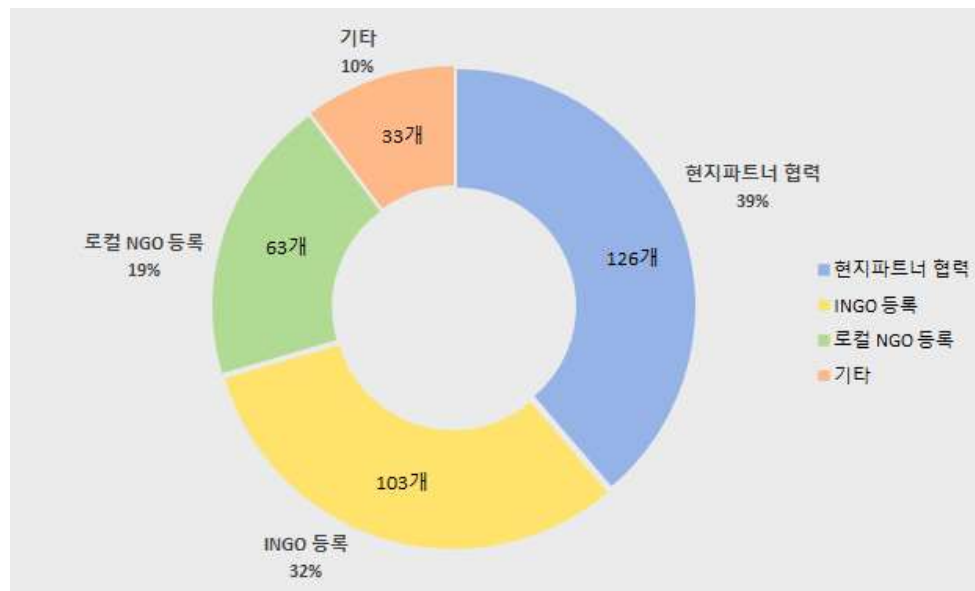


그림 3. 응답단체의 현지운영형태

#### 4) 주요 이해관계자

자가진단에 앞서 마지막으로 각 단체들의 내/외부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자가진단서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책무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단에 앞서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들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자원제공자, 사업참여자, 내부관계자, 기타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록 하였다. 가장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자원제공자 부분은 개인 및 후원자 그룹이 34개의 응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기업이 28번 언급되어 가장 많은 자원제공자 그룹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기관, 재단/병원/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사업참여자 부분은 현지 주민(수혜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파트너 국가/정부/기관 등도 다수 언급되었다. 또한 단체의 후원자, 기부자, 지부 직원 등도 사업 참여자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의 내부관계자로는 임직원, 위원, 봉사자(단원) 등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올해 기타 부분에서는 별다른 응답이 취합되지 않았다.

### 3. 자가진단 결과 분석

#### 가. 전체 책무성 이행결과 분석

올해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책무성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이행점수 평균 91.8점에 6.78점의 표준편차로 참여 단체들 모두 대체적으로 높은 책무성을 보여주고 있다. 총 5개의 부문별로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회계 부문의 이행점수가 9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95.7점)이 회계 부문과 거의 유사한 점수가 나왔으며, 다음으로 조직 부문(93.1점), 정보공개 부문(87.5점), 사업 부문(87.1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각 부문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러한 양상은 지난 2022년, 2023년의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와 동일하지만 부문별 이행점수는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부문별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

	회계	임직원 행동윤리	조직	정보공개	사업	평균
평균점수	95.8	95.7	93.1	87.5	87.1	91.8
표준편차	6.22	5.24	6.79	10.13	12.35	6.78

본 책무성 자가진단은 단체 내 사업 및 경영부서를 필수로 포함하여 진단할 것을 권장한다. 필수 참여권장 부서가 진단에 참여했을 때, 다섯 가지 부문의 자가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각 부서 참여율을 살펴보면, 권장한 바와 같이 경영부서와 사업부서가 함께 진단에 참여한 경우가 전체의 53.3%였으며, 이 중에서도 15.6%는 단체 내 전 부서가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부서 또는 경영부서로 단일 부서가 자가진단에 참여한 비율은 44.4%였고, 모금부서와 경영부서가 함께 자가진단을 한 단체도 1곳 있었다.

참여부서에 따른 이행결과 점수를 비교해 보면, 필수 참여권장 부서가 모두 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이행점수가 92.96점으로, 단일 부서만 참여한 단체들의 이행점수인 89.72점보다 약 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부문별 책무성 이행결과 분석

지금부터는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부문(조직 부문, 사업 부문, 회계 부문, 정보공개 부문,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의 진단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이행점수와는 다르게 이행률을 계산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 별 이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예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1점, ‘아니오 또는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

우 0점,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세부 점검항목에 따라 0~1점 사이의 부분점수를 부여하고 전체 응답 수로 나누어 이행률을 계산하였다. 단, 응답 중 ‘해당없음’과 ‘무응답’은 평균 이행률 계산 시 총 응답 수에서 제외하였다.

각 부문별로 모든 문항마다 단체들의 평균 이행률을 나타내었고, 이행률이 높은 문항부터 표로 정리하여 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이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과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상위 이행률을 보이는 문항과 최하위 이행률을 보이는 문항을 확인하고 이전 진단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책무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1) 조직 부문

<p><b>행동규범 원칙)</b> 단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분명하고 민주적인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의 제안,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p> <p><b>세부원칙 1.</b>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관계 법령과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구성한다.</p> <p><b>세부원칙 2.</b>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반 시민들이 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다.</p> <p><b>세부원칙 3.</b> 직원 처우가 현실(합리)적이며,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연수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p>
--

위와 같이 행동규범 대원칙 아래 세운 세 가지 세부원칙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책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총 23개의 문항을 통해 조직 부문의 책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중 응답자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항은 17개, 일부만 응답의 대상이 되는 문항이 6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5. 조직 부문 평균 이행률]

문항 내용	평균 이행률	단체 응답 구분					총수
		예	아니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1-2. 우리 단체는 정관 상 법인의 유지, 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인 허가증 재발급 신청 사유 발생 시, 법인 허가증을 재발급 받았다.	100.0%	45개	0개	/			45개
3-4. 우리 단체는 지난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적립) 하였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98.22%	/		43개	2개	0개	45개

30일 전 예고하였다.							
3-1. 우리 단체는 모든 근로자(계약직, 단기 근로 등 포함)와 서면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98.00%			42개	3개	0개	45개
3-2. 우리단체는 전 직원의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성실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97.78%			44개	0개	1개	45개
1-3. 우리 단체는 정관 상 이사진 선임 방식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고,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97.33%			44개	1개	0개	45개
2-3. 우리 단체는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간 협업 및 협조가 원활하다.	96.00%			38개	7개	0개	45개
3-6. (10인 이상 사업장 해당) 우리 단체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리규정(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한다.	95.90%			35개	4개	0개	39개
1-1.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사회)로서, 총회(이사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95.56%	43개	2개				
1-4. 회계연도 마감 후 기한 내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였다.	95.56%	43개	2개				45개
3-3. 우리 단체는 직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95.11%			41개	3개	1개	45개
3-5.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우리 단체는 직원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였다.	93.64%			37개	7개	0개	44개
3-9. 우리 단체는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정하여 설명해주며, 업무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93.33%			36개	9개	0개	45개
1-6. (현지파트너/기관과 협력관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 단체는 현지 기관/NGO와 협력관계 (MOU 등 형태)로 사업을 수행 중인 국가가 있	93.17%			31개	10개	0개	41개

으며,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파트너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1-5 (활동국 중 현지 등록된 법인이 있는 경우) 우리 단체는 현지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NGO 활동에 적합한 법인(로컬 NGO, INGO 등)을 설립하였으며 활동국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다	91.00%		28개	12개	0개 40개
2-1. 자원제공자 및 협력관계자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가 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연락 가능한 담당 부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90.22%		34개	11개	0개 45개
3-8. 우리 단체는 지난해 우리 단체에 적용된 법정 의무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다.	87.56%		31개	14개	0개 45개
3-7. (30인 이상 사업장 해당) 우리 단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86.09%		15개	8개	0개 23개
3-10. 우리 단체는 현지 직원 및 출장자에게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다.	86.00%		27개	18개	0개 45개
2-2. 우리는 설문조사, 인터뷰, 평가, 회의, 공개 워크숍, 온라인피드백 등의 방법을 통해 관계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	76.44%		20개	24개	1개 45개
<b>조직 부문 평균 이행률</b>	<b>92.99%</b>				

※ 응답 총수가 45가 아닌 문항은 '해당사항 없음'이 포함됨.

### 가) 이행 수준 상위 항목

올해 조직 부문의 평균 이행률은 약 93%이며, 총 23개 문항 중 이행률이 가장 높은 3개 항목의 평균 이행률은 98.7%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정관상 법인의 유지,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1-2문항은 45개의 응답단체 모두가 '예'라고 응답하여 100%의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직원 처우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고의 경우 30일 전 예고하였는지(3-4), 계약직, 단기 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3-1), 직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성실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3-2)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도 각 98.22%, 98.0%, 97.78%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해당 세 문항의 이행률은 작년과 비교하여

평균 5.21% 상승했으며, 올해 새롭게 조직 부문의 이행을 상위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 나) 이행 수준 하위 항목

반면 조직적 책무부문에서 낮은 이행수준을 보이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설문조사, 인터뷰, 평가, 회의, 공개 워크숍, 온라인피드백 등의 방법을 통해 관계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2-2)으로, 이에 20개 단체만 '매우 그렇다' 라고 답변하여 총 76.44%로 가장 낮은 이행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현지 직원 및 출장자에게 위기상황에 따른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3-10)과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3-7)에 대해서 각 86.0%, 86.09%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낮게 집계되었다. 참고로 이 중 3-7문항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문항이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단체들의 응답 수는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다.

#### 다) 조직 부문 종합

조직 부문은 법적 의무로서의 구조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과 굿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의무의 이행을 질의하는 문항은 단체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응답할 수 없도록 설계된 문항이 다수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세부원칙1'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관계 법령과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야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들의 객관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부원칙1'은 조직 부문에서도 평균 95.44%로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직원 처우가 현실(합리)적이며,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 '세부원칙3'은 단체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확인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원칙3' 역시 평균 93.16%라는 높은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3년의 결과인 88.31%와 비교했을 때 약 5%의 이행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자가진단에 모두 참여한 31개 단체의 이행률만 비교했을 때는, 2023년 92.0%, 2024년 91.94%로 이행률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부원칙3'의 이행률 상승은 작년과 올해 각기 다르게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굿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 책무를 질의하고 있는 문항으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업구조(세부원칙2)에 대한 질의가 있다. '세부원칙2'의 평균 이행률은 87.56%로, 조직 부문의 다른 세부원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행률을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낮은 이행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 진단 결과를 분석했을 때와 마

찬가지로, 단체들이 이행수준을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거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자면, 해당항목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응답자가 ‘상시적 창구’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 부문은 법적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사항이 다수이고, 미준수 시 과태료 등의 사회적 제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는 해당되는 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자가진단을 통해 단체의 불이행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면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법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다.

## 2) 사업 부문

<p><b>행동규범 원칙)</b> 단체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이 사업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통된 원칙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이어야 한다. 단체는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책무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p> <p><b>세부원칙 1.</b> 단체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계획-시행-평가한다.</p> <p><b>세부원칙 2.</b>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재난대응, 복구, 난민지원) 분야의 사업 수행 시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통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한다.</p>
---

위와 같은 행동규범 대원칙 및 두 가지 세부원칙에 따라, 우리가 열심을 내어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책무성과 투명성을 잘 지키며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다르게 ‘예’, ‘아니오’로 응답해야하는 문항은 없으며, 모두 이행의 정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항에는 세부점검항목을 두어, 충족하고 있는 항목의 개수에 따라 이행 점수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총 13개의 문항을 통해 사업책무성 이행률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응답자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항은 11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대상 문항이 2개 추가되어있다.

[표6. 사업 부문 평균 이행률]

문항 내용	평균 이행률	단체 응답 구분					총수
		예	아니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2-2. 우리 단체는 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지 주민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96.44%			38개	7개	0개	45개

2-1. 우리 단체는 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있다.	94.67%		33개	12개	0개	45개
2-5. 우리단체는 사업추진과정과 결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94.22%		34개	11개	0개	45개
2-6. 우리단체는 성평등과 성형평성 구현을 위하여 사업 수행시 젠더 요소를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다.	93.78%		36개	9개	0개	45개
2-3. 우리단체는 현지 주민들이 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91.56%		37개	7개	1개	45개
1-1. 단체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90.67%		33개	11개	1개	45개
1-3. 우리단체는 진행중인 사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86.67%		30개	15개	0개	45개
1-2. 우리단체는 수요조사,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86.22%		31개	13개	1개	45개
1-4. 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통한 교훈은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83.11%		26개	19개	0개	45개
2-4. 우리 단체는 인권기반접근에 기초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81.33%		24개	20개	1개	45개
2-7. 우리 단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78.89%		22개	21개	2개	45개
2-8.(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 단체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 사업 수행시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조정체계에 참여한다.	73.71%		18개	13개	4개	35개
2-9.(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 단체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시 인도적 지원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3.53%		16개	15개	3개	34개
<b>사업 부문 평균 이행률</b>	<b>86.52%</b>					

※ 응답 총수가 45가 아닌 문항은 '해당사항 없음'이 포함됨.

### 가) 이행 수준 상위 항목

사업 부문의 평균 이행률은 86.52%이며, 그중 이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모두 현지를 고려하고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이행률 상위 3개 문항의 평균은 95.11%로 전체 평균이행률보다 약 1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단체들의 상위 이행수준의 항목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행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지 주민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2-2)**를 확인하는 문항이며, 총 8개의 세부점검항목 중 단체가 충족하고 있는 개수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였다. 전체 45개 단체 중 38개 단체가 8개의 점검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개 단체는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총 96.44%의 이행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지의 상황과 전통을 적극 반영한 사업인지, 지역 주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현지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2-1문항에 대해서는 총 33개 단체가 7개의 세부점검항목을 모두 고려하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2개 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현지를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총 94.67%의 이행률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행률이 높은 세 번째 항목은 **'Do No Harm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수행하는지(2-5)**이다. 34개 단체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1개 단체는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총 94.22%의 평균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 나) 이행 수준 하위 항목

올해 사업 부문에서 가장 낮은 책무이행수준을 보이는 항목은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시 인도적 지원 최소기준을 적용하고(2-9),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조정체계에 참여하는지(2-8)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2-7)**이었다. 2-8과 2-9문항은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만 해당되는 질문이며, 2-7문항은 모든 단체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위 세 가지의 항목의 평균이행률은 75.37%로 사업부문 총 평균이행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11%나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세 가지의 항목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사업 부문에서 가장 이행률이 낮은 하위 3개 항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 다) 사업 부문 종합

사업 부문의 평균 이행률은 86.52%이며, 표준편차가 12.35로 전체 진단 부문 5개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 부문의 책무성을 확인하는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고, 각 문항마다 세부 점검항목을 두어 충족되는 개수에 따라 부분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된 다른 부문들과는 다르게 단체들마다 이행률 차이가 크며, 점검 항목마다의 이행률 차이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22년과 2023년의 진단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행률 상·하위 3개 항목에 변동이 없고, 그 외 전체적으로도 각 문항별 이행률의 변화나 이행 수준이 높은 순서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과 올해 모두 자가진단에 참여한 31개 단체의 이행률 변화만 확인해보았는데, 31개 단체의 작년 사업 부문 이행률은 86.95%였으며 올해 이행률은 86.09%로 역시나 이행률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적으로 이행률이 낮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겠다.

### 3) 회계 부문

<p><b>행동규범 원칙)</b> 단체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후원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전문적인 재정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b>세부원칙 1.</b> 국제기준 및 회계 법규 및 단체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거래 내역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p> <p><b>세부원칙 2.</b> 재정운영에 관한 회계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재정적 책무를 다한다.</p>
--

회계 부문은 단체가 재정을 책임감 있게 관리, 사용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 27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전체 단체에 응답을 요하는 질문은 16개, 일부 단체에만 적용되는 질문은 11개이다. 총 다섯 가지 부문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표7. 회계 부문 평균 이행률]

문항 내용	평균 이행률	단체 응답 구분					총수
		예	아니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1-5. (출연재산 있는 경우) 우리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요구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의무 등을 기한 내 신고하고 있다.	100.0%	43개	0개				43개
1-8.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우리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 기한 내 제출하였다.	100.0%	40개	0개				40개

1-10.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 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다른 회계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통 자산/부채/손익은 안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다.	100.0%	25개	0개				25개
1-14. (기부금 수입이 있는 기관) 우리 단체가 '결산공시 서류' 중 '기부금수입'으로 공시한 금액과 '기부금내역공개서류' 상 공개한 '기부금수입'이 일치한다.	100.0%			44개	0개	0개	44개
1-16. 우리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내 제출하였다.	100.0%	44개	0개				44개
2-3.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보조금, 정기에금 관련계좌 제외), 실제로 신고된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있다.	100.0%	45개	0개				45개
1-3. 우리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결산정보를 기한 내 공시하고 있다.	99.11%			44개	1개	0개	45개
1-13. 우리 단체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서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지정된 기한 내에 단체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하고 있다.	98.22%			43개	2개	0개	45개
1-1. 회계/재정에 관한 결정사안을 총회(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목적에 따라 타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내/외부감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97.78%	44개	1개				45개
2-2. 우리 단체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의 통장을 구분하고 있다.	97.50%	39개	1개				40개
1-9.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 우리 단체는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법인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96.77%	30개	1개				31개
1-2. 우리 단체는 공익법인회계기준(또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95.56%	43개	2개				45개

2-1. 우리 단체는 사업연도별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계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하고 있다.	95.56%	43개	2개				45개
1-11.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 우리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세하였다.	95.45%	21개	1개				22개
1-6. (출연재산 있는 경우) 우리 단체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출연재산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	95.35%			35개	8개	0개	43개
1-15.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모금을 한 경우) 우리 단체는 불특정다수로부터 1년 이내 1천만원 이상 모금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95.29%			30개	3개	1개	34개
1-7. (주식 보유 기관) 우리 단체는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94.29%			6개	1개	0개	7개
2-4. 우리 단체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93.33%	14개	1개				15개
2-5. 우리 단체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였다.	92.44%			34개	11개	0개	45개
1-4. 우리 단체가 결산 공시한 자료는 정확하며,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92.00%			33개	12개	0개	45개
1-12.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하여) 우리 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다.	91.11%	41개	4개				
2-7.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단체 운영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재정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88.44%			28개	17개	0개	45개
2-6. 우리 단체는 내부 회계 규정, 지침 등 예산 운영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88.00%			29개	16개	0개	45개
<b>회계 부문 평균 이행률</b>	<b>95.92%</b>						

※ 총 응답수가 45가 아닌 문항은 '해당사항 없음'이 포함됨.

#### 가) 이행 수준 상위 항목

회계 부문은 기본문항 23개 중에서 13개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10개 문항은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행 상위 수준의 항목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이행률 100%를 보이는 문항은 총 6개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의무, 세무확인서 제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관리, 기부금 성실신고, 전용계좌 사용** 여부에 관한 문항이다.

이 외에 공익법인 등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묻는 7개의 문항에서도 한 두 개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나) 이행 수준 하위 항목

회계책무 이행이 가장 낮은 세 개 항목의 평균 이행률은 89.18%로 이행률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수준을 보이는 부분 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예산 운영기준을 갖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2-6)**에 대한 이행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은 여섯 가지의 세부 점검항목을 두고 있는데, 예산 운영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정하고 있는지, 전 결 지침을 통해 권한과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문서 번조가 어려운 전자 결재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지, 증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 여섯 개의 점검항목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29개였으며 나머지 16개 단체는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총 88%의 이행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예산 확보 및 집행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확보 및 운영에 위험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비가 되어있는지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2-7)**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제시한 여섯 가지의 점검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28개, 부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17개로 총 88.4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1-13)**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과세기간 후 2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총 45개의 응답단체 중 4개 단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다) 회계 부문 종합

올해의 회계책무성 이행률은 95.92%로 다른 부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회계 부문의 질의는 법적인 의무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적법한 재정운영과 관련된 문항 외에도 책임감 있게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모든 문항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5년간의 책무성 자가진단 응답을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

며, 이는 ‘책임성’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부문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책무 부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회계부문은 법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많고, 책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통해 우리단체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영향도 있다.

작년 회계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올해 약 8.5%의 이행률 상승을 보인 항목이 있는데, 이는 ‘결산 공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문항(1-4)이다. 해당 문항은 총 15개의 세부 점검항목을 두고 있으며, 모든 법인에게 해당하는 점검항목 5개와 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표준서식으로 공시를 하는 법인에게만 해당하는 점검항목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결산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단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년과 올해 모두 자가진단에 참여한 31개 단체들의 이행률 변화만 살펴보았다. 해당되는 단체들의 1-4문항의 작년 이행률은 89.35%, 올해 이행률은 92.26%로 약 3% 정도의 이행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평균 이행률 상승값에는 못 미치지만 2년 연속 진단에 참여한 단체들도 공시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는 작년과 올해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이 상이함에 따른 이행률 상승으로 봐야할 것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공시에 대해서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리서치 기관 등에서도 단체들의 결산공시 결과를 확인하고 그의 성실 여부, 정확성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해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해가 거듭될수록 해당 부분에 대한 단체들의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다.

#### 4) 정보공개 부문

<p><b>행동규범 원칙)</b> 단체는 단체의 운영, 활동 및 회계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다른 NGO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유한다.</p> <p><b>세부원칙 1.</b>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공시하며,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한다.</p> <p><b>세부원칙 2.</b> 모금/홍보 활동 시 단체의 정체성과 사업의 목적, 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설명하되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모금/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에 있어 협력대상국 주민의 인권과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자료를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p> <p><b>세부원칙 3.</b>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개발활동 자원의 중복투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과잉경쟁을 지양하며 서로 협력한다.</p>
--

정보공개 부문에서는 위 행동규범 아래 세 가지의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단체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소통하며 운영, 활동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였다. 총 14개의 질문이 있으며 이 중 전체에게 적용되는 문항 8개, 일부 단체에만 적용되는 문항 6개가 있다.

[표8. 정보공개 부문 평균 이행률]

문항 내용	평균 이행률	단체 응답 구분					총수
		예	아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2-4. 현지 지역과 촬영 대상 주민에 관한 정보를 후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100.0%	44개	0개				44개
3-1. 우리 단체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등 개발협력 NGO의 활동정보를 취합하는데 응답하고 있다.	95.56%	43개	2개				
1-1. 우리 단체는 단체의 기본정보, 이사 구성, 재무정보를 온라인에 필수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94.22%			34개	11개	0개	45개
3-3. 우리 단체는 사업 내용, 수행 지역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93.78%			38개	7개	0개	45개
2-5. 우리단체는 사업추진과정과 결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93.02%	40개	3개				43개
3-2. 우리 단체는 사업의 성과와 영향(사회적 기여도)을 평가한 연간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 공개하고 있다.	91.11%						38개
1-2. 후원자가 본인의 후원 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8.18%			31개	13개	0개	44개
1-5.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87.11%			23개	22개	0개	45개
1-6. 우리 단체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86.22%			21개	24개	0개	45개
2-1. 우리 단체는 모금/홍보 관련 시 현지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83.64%			27개	14개	3개	44개

1-4.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82.22%			21개	24개	0개	45개
1-3. 우리 단체는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 1개 이상을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결하고 있다.	80.00%	36개	9개				45개
2-3. 모금/홍보 활동을 위한 촬영 시 촬영 과정 혹은 이후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현지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78.64%			22개	21개	1개	44개
2-2. 모금/홍보 활동을 위한 촬영 시, 촬영자 신분과 촬영 목적,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지 대상 주민의 사전 동의 하에 촬영하고 있다.	72.44%			17개	26개	2개	45개
<b>정보공개 부문 평균 이행률</b>	<b>87.58%</b>						

※ 총 응답수가 45가 아닌 문항은 '해당사항 없음'이 포함됨.

#### 가) 이행 수준 상위 항목

정보공개 부문의 평균 이행률은 87.58%이며 사업 부문 다음으로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단체들이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현지 지역과 촬영 대상 주민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2-4)를 점검하는 항목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1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100%의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에서도 꾸준히 높은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는 문항이기도 하다.

또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개발협력 활동 자원의 중복투입 및 비효율성을 예방하고자 진행되는 활동정보 취합에 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3-1)에 대해서도 2개 단체를 제외한 43개 단체가 응답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여 95.56%의 이행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단체가 단체의 기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1-1)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이행률 94.22%) 해당 문항은 총 8개의 세부 점검 항목(홈페이지/SNS활용, 단체의 비전과 미션, 설립 목적, 소재지 및 연락처, 조직도, 임원 정보, 전년도 결산, 후원금 모집 내용, 정관 등의 공개 여부 확인)을 두어 정보공개 수준을 확인하고 있는데, 34개 단체가 이 중 7개 이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단체도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나) 이행 수준 하위 항목

정보공개 부문에서 낮은 책무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문항은 **모금/홍보 활동을 위한 촬영시, 촬영동의 절차를 거치는지(2-2)와 현지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하고 필요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지(2-3)**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두 내용 모두 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지침이며, 촬영 동의를 받는 절차는 기록이 남도록 ‘서면 또는 녹음’의 형태로 받았는지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이행수준이 다르게 집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고 있는지(1-3)**에 대한 문항에서도 36개 단체만이 이행, 9개 단체가 불이행하여 80%의 낮은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 다) 정보공개부문 종합

정보공개 부문의 평균 이행률은 87.58%이며 단체별 이행률의 표준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부문이나 회계 부문처럼 법적 규제와 연결되는 강제적인 책무보다는 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을 고려하는 정보들을 만들고 공유하는 등의 단체의 자발적인 동기와 인지 수준에 따른 책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현지 주민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모으고 행동해 온 결과 이제는 대다수의 단체들이 미디어 등의 홍보자료 제작 시 현지 주민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등과 같이 **개발협력활동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 대한 참여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2022년 79.7%, 2023년 90.74%, 2024년 95.56%) 이 역시 단체 간 경쟁구도를 떠나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개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공개 부문에서 이행률이 낮은 항목 중 하나로 뽑힌,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작년 진단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행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이행률 75.93%, 2024년 이행률80.0%) 하지만 해당 문항은 공익법인,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기간동안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9개 단체는 바로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금/홍보 활동을 위한 촬영 시, 대상자에게 촬영 및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동의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이행률이 낮은 부분으로 조사 되었고, 더불어 작년의 이행률(75.69%)보다 올해 더 낮은 이행률(72.44%)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완전 불이행 보다는 부분이행의 응답이 많은데, ‘세이프가딩’에서 촬영 전 동의를 구하

는 방식을 서면/녹음으로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구두로 사전동의를 받는 단체가 현저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권고사항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사업현장에서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선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5)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

<p><b>행동규범 원칙)</b> 단체의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 등 개발 NGO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 행동규범에 명시된 임직원 행동윤리를 준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다.</p> <p><b>세부원칙 1.</b> 개발NGO 임직원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p> <p><b>세부원칙 2.</b> 개발NGO 임직원은 공익활동의 수행자로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단체와의 연대를 중시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p> <p><b>세부원칙 3.</b> 개발NGO 임직원은 어떤 형태의 뇌물, 부패, 강요 및 횡령도 금지하며, 단체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단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확고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한다.</p>
--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은 개발NGO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의 세부원칙에 따라 총 8개의 질문을 하고 있다.

[표9.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 평균 이행률]

문항 내용	평균 이행률	단체 응답 구분					총수
		예	아니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2-1. 우리 단체는 임직원이 공익활동의 수행자로서, 사업 참여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100.0%	45개	0개				45개
2-2. 우리 단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되, 정치적,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100.0%	45개	0개				45개
3-1. 우리 단체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며,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행위를 단호히 배척하고 있다.	100.0%	45개	0개				45개
3-2. 우리 단체는 임직원이 신분,	100.0%	45개	0개				45개

권한 등 업무상 위계, 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성적 언동 등 부적절한 행위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3. 우리 단체는 임직원이 사내 정보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내 기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유출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100.0%	45개	0개					45개
3-5.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 시 확고하고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0.0%	45개	0개					45개
3-4. 우리 단체는 뇌물, 부패,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를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자)가 있고,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95.56%	43개	2개					45개
1-1. 우리 단체는 단체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선언하고 있다.	70.22%				19개	21개	5개	45개
<b>임직원 행동윤리 부문 평균 이행률</b>	<b>95.72%</b>							

**가) 이행 수준 상·하위 항목**

책무성 자가진단의 마지막 부문인 임직원 행동윤리에서는 95.72%라는 높은 책무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응답에 참여한 단체 모두가 총 8개 문항 중 6개 문항에서 이행률 100%를 보여주었다.

이행률이 100%가 아닌 두 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단체 내 위반행위를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자)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3-4)**에 대해 2개의 단체를 제외한 43개 단체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2개 단체는 접수 담당부서(자)가 없거나 신고 시 비밀보장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지(1-1)**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19개 단체가 윤리적 책무이행을 위한 제도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선언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개 단체가 마련하였으나 공개선언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 나머지 5개 단체는 제도화 장치를 마련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체들이 윤리적 책무이행을 위한 제도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은 단체 자체적으로 원칙을 제정하거나 ‘국제개발협력NGO 행동규범’ 또는 ‘세이프가딩 정책’ 등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 종합**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은 올해 진단 결과 중 회계 부문과 거의 동일한 이행률로 책무 이행이 높은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자가진단 결과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부문이기도 하다.

작년의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 진단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행 수준과 이행률이 높은 순서가 거의 동일한데, 다만 이행률이 100%가 아닌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교하여 각 10% 정도의 이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에서 가장 이행이 부족한 1-1문항(임직원 행동윤리의 기준 마련과 공개선언)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윤리적 책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제도 또는 차용하고 있는 행동규범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선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다. 자가 종합평가(정성평가) 결과 분석**

지금까지 총 다섯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단체들의 책무이행 수준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단체들이 어떠한 원칙에 기준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개발협력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총 다섯 개의 부문에 따라 스스로 진단하였을 때 단체의 지난 1년간의 책무 이행에 대해 총평하며, 향후 단체의 책무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업 적용 원칙 및 기준 이행 노력**

올해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한 총 45개 단체 중 43개 단체가 해당 문항에 답변하였으며, 대부분의 단체는 단체의 비전과 미션, 설립이념 등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모금 내역 및 모금액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감사 수검에 성실히 응하는 등 재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들이 많았다.

또한, 단체별로 수행하는 개발협력사업의 특색에 맞는 사업원칙들이 다양하게 취합되었으며(UNCRPD, UNCRC, 인도주의 핵심기준 및 최소 기준 등), 그 중 세이프가딩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는 답변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들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고 답변하였다.

##### **2) 진단 결과 종합평가**

자가진단 참여단체들은 모든 객관식 문항에 응답한 후, 단체의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의 종합평가를 서술하였다.

진단을 통해 단체가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부분과 어떤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책무성 향상을 위해 단기/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과제를 설정하였다고 다수 응답하였다.

작년 책무성 자가진단 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였고 지난 1년간 개선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올해 책무성 이행점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는 단체도 있었다.

그리고 본 책무성 자가진단서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단도구지만, 단체 내 부서별로 응답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점검 과정에 있어 활발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렸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전사적으로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했다는 단체 중에는 국제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개발협력NGO로서 전체적으로 책무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진단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직원들 역시 자가진단에 참관하도록 하는 등 단체의 책무성 이행 수준에 있어 단체 내 전체적인 이해를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노력하였다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책무성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는 단체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나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될 법률적, 제도적 준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단체의 현재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미래를 위한 여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준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무성 자가진단서 개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세부 점검항목 등에서 한국이 본부가 아닌 International NGO로서 단체에 맞게 해석/적용해서 응답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체에서 이 해석 범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필요했다며 좀 더 다국적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NGO로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업데이트된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10. 단체의 책무성 증진 노력/평가내용 소개]

<p>기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KCOC 책무성 자가진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기관에서 처음 적용하는 활동으로 직책별, 부서별 진단 문항들에 대해 이해도가 달랐으며 답변에서도 온도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존중을 배경으로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가진단을 완료하였다.</p> <p>-단체A</p> <p>검토 결과 각 부문에서 단기/장기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선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바 임원진 및 각 부서장이 자발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목상 진행했던 책무성이 올해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는 바 내년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단체B</p> <p>작년과 비교해서 자가진단서를 분석할 때 많은 개선이 진행됨. 예산편성 문항에서 작년에는 일부 충족하였으나, 올해는 모두 충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인도적 지원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고, 세이프가딩을 이행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정책을 제정하고 교육 및 분기별 점검을 실시함.</p> <p>-단체C</p> <p>다섯 가지 자가진단 평가 기준에 대한 24년 평가 결과는 본 기관에서 책무성을 위한 내부 규정 수립 및 시행 등의 지속적 점검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동규범 및 기본원칙 분야 중 세이프가딩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내부 정책 재정립 및 문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올해 이를 보완, 완료하고자 합니다.</p> <p>-단체D</p>
--

### 3) 올해의 중점 책무

정성평가의 마지막 항목으로, 자가진단을 마친 후 무엇을 단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두고 책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자가진단에 참여한 45개 단체는 총 116개의 중점 책무 문항을 선정하였고 중복으로 선정된 문항을 제외하면 총 38개의 문항이 단체들이 뽑은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다섯 가지 부문별로 구분해 봤을 때, 사업(13개 문항, 66회 선정), 정보공개(12개 문항, 30회 선정), 조직(9개 문항, 13회 선정), 회계(3개 문항, 4회 선정), 임직원 행동윤리(1개 문항, 3회 선정) 부문 순으로 다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책무성 이행 수준이 높은 부문별 순서와 역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문별 올해의 중점 책무로 선정된 문항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11. 부문별 올해의 중점 책무 선정 문항]

부문	중점책무 문항	선정횟수	이행률
[조직]	2-2 외부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의독려	2	76.44%
	3-6 취업규칙 제정	2	95.90%
	3-9 직원의 성장지원	2	93.33%
	3-10 직원의 안전보호	2	86.00%
	1-5 현지법에 따른 운영	1	91.00%
	1-6 현지 파트너기관의 실체 확인 및 협력관계 서약	1	93.17%
	2-1 외부이해관계자/ 소통방법 안내	1	90.22%
	3-6-A 취업규칙 변경	1	100%
	3-7 노사협력구조 확립	1	86.09%
소계	9개 문항	13회 선정	
[사업]	2-4 인권기반접근에 기초한 사업 수행	9	81.33%
	2-3 현지주민 참여 수준	8	91.56%
	1-4 사업의 평가 및 교훈 반영	7	83.11%
	2-2 현지주민 존중 및 세이프가딩	6	96.44%
	2-5 Do No Harm 원칙의 준수	6	94.22%
	1-2 수요조사 실시	5	86.22%
	2-8 인도적지원사업 조정 체계에의 참여	5	73.71%
	1-1 사업선정기준 - 비전과 사명, 전략의 수립	4	90.67%
	2-1 현지문화와 관습 존중	4	94.67%
	2-9 인도적지원 최소기준 적용	4	73.53%
	1-3 주기적인 사업 모니터링	3	86.67%
	2-7 국제개발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응 호 활동에 참여	3	78.89%
	2-6 성평등/성형평성 구현을 위한 노력	2	93.78%

소계	13개 문항	66회 선정	
[회계]	2-6 내부 회계관리체계 확립	2	88.00%
	1-2A 복식부기 회계처리 가능 시스템 이용	1	
	2-7 리스크 관리	1	88.44%
소계	3개 문항	4회 선정	
[정보공개]	2-1 미디어 활용 및 세이프가딩 - 지침교육	7	83.64%
	1-2 후원내역 정보 공개	2	88.18%
	1-4 개인정보 보호환경 구축	4	82.22%
	2-2 미디어 활용 및 세이프가딩 - 촬영동의절차	4	72.44%
	1-1 단체의 기본정보 공개	3	94.22%
	3-3 사업 내용 및 지역 정보 공개	3	93.78%
	2-3 미디어 활용 및 세이프가딩 - 부정적 영향 사전고려/예방	2	78.64%
	1-3 공익제보 요청 여부	1	
	1-5 개인정보 처리환경 마련 및 침해대응	1	87.11%
	2-4 미디어 활용 및 세이프가딩 - 사실전달	1	100%
	2-5 미디어 활용 및 세이프가딩 - 긍정적 묘사	1	93.02%
	3-2 활동정보 공개 - 연간보고서 발행	1	91.11%
소계	12개 문항	30회 선정	
[임직원윤리]	1-1 윤리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3	70.22%
소계	1개 문항	3회 선정	
<b>합계</b>	<b>38개 문항</b>	<b>116회 선정</b>	

총 다섯 가지 부문에서 가장 많은 중점 책무 문항이 선정된 부문은 사업 부문으로 총 13개 문항이 66회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정문항이 가장 많이 포함된 부문은 정보공개 부문으로 총 12개 문항이 30회 선정되었다. 사업 부문과 정보공개 부문은 앞서 각 부문별 이행수준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보아, 법적 규제 등과 관련된 필수 이행 항목보다는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 수준에 따라 책무성의 이행점수 또한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대부분인 평가 부문으로,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이행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우선 과제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섯 가지 부문 모두, 이행률이 가장 낮은 항목들은 중점 책무 항목으로 1회 이상 선정되었지만, 중점 책무로 다수 선정된 순서를 보면 이행률이 낮은 항목들이 중점 책무 문항으로 다수 선정되지도 않아, 이행 수준과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된 순서는 역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 이행률이 높은 항목들도 중점 책무 문항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조직 3-6 취업규칙 제정 95.90%, 3-6-A 취업규칙 변경 이행률 100% 등)

이를 통해 각 단체가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한 배경과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꼭 우리 단체의 현재 이행수준이 낮은 항목이 우선 과제로 선정

되지만은 않으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책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우선 과제로 선정하기도 하며, 지금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곧 도래할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단체들이 자가 진단을 거친 후 중점 책무 문항을 선정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자가진단서의 총 86개의 문항 중에서 단체들이 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한 세 가지 문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12. 올해의 중점 책무 선정 상위 문항]

순위	부문	중점책무 문항	선정횟수	이행률
1	[사업]	2-4 인권기반접근에 기초한 사업 수행	9	81.33%
2		2-3 현지주민 참여 수준	8	91.56%
3	[정보공개]	1-4 사업의 평가 및 교훈 반영	7	83.11%
		2-1 미디어 활용 및 세이프가딩 - 지침교육	7	83.64%

올해 단체들이 가장 많이 뽑은 중점 책무문항 1, 2, 3위는 모두 사업 부문의 책무 문항으로, 그중에서도 인권기반접근에 기초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2-4)를 묻는 문항이 총 9회 선정되어 가장 많은 단체가 뽑은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의 이행률은 81.33%로 사업 부문에서 비교적 낮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작년 이행률 85.09%와 비교하였을 때도 이행률이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항목은 총 7개의 세부 점검항목을 두어 단체의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인권기반 접근 정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응답한 총 45개 단체 중 24개 단체가 6개의 세부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높은 수준의 인권기반 접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0개 단체는 세부 점검항목을 일부만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개 단체는 세부 점검항목 중 충족되는 항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인권기반의 사업수행을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한 9개 단체들의 이행수준만 확인해 보았을 때, 총 9개 단체중 4개 단체는 이미 세부 점검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개 단체는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 나머지 1개 단체가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이미 인권을 고려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들에서도 지속적인 책무성 유지 또는 책무성 향상을 위해 중점책무로 선정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중점 책무사항은 현지 주민들이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2-3)와 사업 종료 후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1-4)를 확인하는 문

항이다.

2-3 문항은 ‘Arnstein 주민 참여 수준’에 따라 총 여덟 단계의 주민 참여 수준 중 어느 단계까지 해당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전체 평균 91.56%의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총 37개 단체가 총 8개의 단계 중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7개 단체는 3~5단계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 나머지 1개 단체는 1~2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문항을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한 8개 단체의 결과만 살펴봤을 때, 3개 단체는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4개 단체는 3~5단계, 1개 단체는 1~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행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단체가 해당 8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 참여 수준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해 올해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중점 책무문항 3위로 뽑힌 항목인 사업의 평가와 그 결과를 환류하는 부분(1-4)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 83.11%의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26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1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별 응답지를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 19개 단체 중 3개 단체만이 해당 문항을 올해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단체들은 모금/홍보 관련시 현지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활용하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많이 뽑았다. 해당 문항은 ‘한국 국제개발협력CSO를 위한 세이프가딩’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교육/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문항에서는 총 27개의 단체가 세부 점검항목 다섯 가지 중 네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4개 단체가 일부를 충족하고 있고, 3개 단체가 충족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모금활동을 하지 않거나, 모금활동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1개 단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문항을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한 단체들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세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3개 단체 중 2개 단체가 해당 문항을 올해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했으며, 일부만 충족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2개 단체가, 4개 이상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 중에서도 3개 단체가 이를 올해의 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이프가딩 지침교육 문항은 작년에 중점 책무 문항 1위로 선정되었으며, 작년과 올해 이행률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올해 해당 항목을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한 7개의 단체 중 3개 단체는 작년도 자가진단에 참여해 해당항목을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으로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종합

KCOC는 매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단체들이 매해 전사적으로 조직 및 사업 운영에 대한 회고와 함께 단체에게 요구되는 책무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단체의 활동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자 하는 데 있다.

올해는 총 45개 단체가 책무성 자가진단 응답을 제출하였으며, 그중 KCOC 회원단체가 40개, 비회원단체 5개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올해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응답단체의 상근 직원 수가 10인 이하인 단체와 10인 이상인 단체가 각 절반씩이었으며, 설립근거법상 비영리 법인,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기부금 관련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의 성격을 띠는 단체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참여단체들의 사업 활동국가를 살펴보았을 때, 캄보디아가 가장 많은 활동국가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국가는 베트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단체들이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현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INGO 등록, 로컬NGO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본 자가진단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단체 내 경영부서와 사업부서가 진단에 필수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자가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의 참여부서를 살펴보면, 전체부서가 참여한 경우를 포함해 사업부서와 경영부서가 진단에 모두 참여한 비율이 전체의 53.3%였으며, 해당 단체들의 이행점수는 사업부서와 경영부서 모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의 진단 결과에 비해 약 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단체들의 책무성 이행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 평균점수 91.8점으로 대체로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각 부문별 이행점수를 보았을 때, 회계 부문 95.8점,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 95.7점으로 거의 동일한 이행 수준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조직 부문이 93.1점, 정보공개 부문이 87.5점, 사업 부문이 87.1점으로 나머지 세 부문 역시 우수한 수준의 책무 이행수준을 보여주었다.

다섯 가지 부문의 이행점수 표준편차도 살펴보면, 회계 부문 6.22점, 임직원 행동윤리 5.24점, 조직 부문 6.79점, 정보공개 부문 10.13점, 사업 부문 12.35점으로 과거 진단결과들과 비교했을 때와 동일하게, 정보공개 부문과 사업 부문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가진단서의 특성상 회계 부문과 임직원 행동윤리 부분, 조직 부문은 이행 여

부를 질의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된 반면, 정보공개 부문과 사업 부문은 이행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다수 설계되어 있는 진단서의 특성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때문에 올해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실제 단체들이 회계 책무성 이행수준이 가장 높고, 사업 부문의 책무 이행 수준이 낮았다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응답단체들은 자가진단을 통해 단체가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책무들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의 이행 노력을 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장/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영부서와 사업부서만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하지 않고 전사적인 과제로 삼아 단체 내 전체적으로 단체의 책무성 수준에 대한 이해를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후기도 있었다.

참여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책무성 증진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 후 올해의 중점 책무 문항을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사업 부문의 문항들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공개, 조직, 회계,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 순으로 많은 항목들이 책무성 증진을 위한 우선과제들로 꼽혔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문항은 사업부문의 '인권기반접근에 기초한 사업 수행'이며, 해당 항목의 이행률은 81.33%로 사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을 보인 항목이다. 해당 항목은 일곱 가지의 세부 점검항목을 두어 단체들이 인권기반접근의 사업을 하고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총 45개 단체 중 20개 단체가 세부 점검항목을 일부만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단체들이 현재의 이행수준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 해당 문항을 우선과제로 다수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현지주민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과, '사업의 평가 및 교훈을 반영'하는 것, '미디어 활용 및 세이프가딩을 교육'하는 것이 중점 과제로 많이 선정되었다. 해당 항목들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 단체들의 이행점수를 확인해보면, 관련 책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해당 문항을 우선과제로 선정한 단체들이 다수 있었다. 이는 반드시 현재 단체의 이행이 부족한 부분만을 올해의 중점 책무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정성을 높이고 현지 주민을 위한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지속 발전시켜나가야할 부분을 중점 책무로 선정할 수도 있겠다.

본 책무성 자가진단서는 이름대로 단체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도구이므로 제출된 응답의 결과가 단체들의 실제 투명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판단으로 자가진단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참여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각 문항별 세부 점검항목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문항 바로 아래 소개하는 등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여러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응답의 주체는 단체의 임직원이며 제출된 응답을 KCOC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응답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체가 매해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회고하고 사회

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노력하며, 책무성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모든 일련의 활동이 갖는 의미도 크다고 판단하기에 KCOC는 계속해서 단체들에게 자가진단을 독려하고 있다.

KCOC는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발간한 이래 10년 동안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체들에게 강요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매해 자가진단에 참여하는 단체와 참여율은 상이하며, KCOC 전체 회원단체 수에 비해 높지 않은 참여율을 보인다. 지난 10년간 KCOC에게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 단체 수를 살펴보면 매해 평균 약 60여개 단체가 자가진단에 참여하였고, 올해는 지난 10년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응답이 취합되었다.

강제성이 없이 책무성 자가진단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렇게 매해 취합된 응답의 분석 결과로 함의점을 찾는 것 또한 제약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대로, 본 책무성 자가진단의 활동은 분명한 개발NGO의 책무성 현황과 지표가 되기보다, 자가진단에 참여하는 NGO들에게 단체의 책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 별첨. 2024년 책무성 자가진단 참여단체 소개(가나다순)**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1	굿네이버스	회원단체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로서 국내 및 해외 44개국 아동과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하며,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	굿뉴스월드	회원단체	굿뉴스월드(Good News World)는 2008년 지구촌 곳곳에서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국제개발 NGO로서 국내 및 해외 개발도상국에 보건의료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 긴급구호 등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	굿파트너즈	회원단체	(사) 굿파트너즈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자립을 위해 일합니다. 모두가 자립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 불평등, 빈곤,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 사람의 가치를 존중받는 세상, 가난의 고통으로 아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 단체에서 제출한 단체 소개를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소개된 단체소개, 비전, 미션을 반영하여 작성함

2) 성실참여단체: 자가평가(단체의 이행노력, 진단결과 평가, 올해 단체 중점 책무 사항)부문 모두 작성한 단체(총 42개 단체)을 의미함.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4	굿피플인터내셔널	회원단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1999년 2월, 종교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돕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굿피플은 국내 외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5	글로벌발전연구원	회원단체	글로벌발전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 연구, 평가, 사업기획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과 글로벌 지식 협력을 지향하는 민간주도 ODA 연구컨설팅(Think & Do tank) 기관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ul>
6	글로벌케어	회원단체	글로벌케어는 국내 최초의 국제보건의료NGO로서 지구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국내외 인도적지원 및 의료환경개선과 보건사업지원 등의 국제개발에 앞장서는 비영리단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7	글로벌호프	회원단체	글로벌호프는 아동을 글로벌리더로 성장시켜 지구촌 희망의 마을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글로벌호프의 도움으로 성장한 리더가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8	대진국제자원봉사단	회원단체	대진국제자원봉사단(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상생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화평한 지구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 NGO단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9	더프라미스	회원단체	재난사회복지NGO 더프라미스는 2008년 설립하여 한국정부의 외교 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이자 UN경제이사회 NGO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자연재난, 사회적 참사, 감염병과 전쟁 등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재난일상화'의 시대, 우리는 공동체들이 스스로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되찾는 것을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0	덴탈서비스 인터내셔널	회원단체	덴탈서비스인터내셔널은 치과 종사자들이 치과 의료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함께 일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구강 상태를 치료해주고 예방 사업을 통해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 양질의 치과의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미나, 실습,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한 학술 지원 및 치과대학의 건립을 통해 수원국 국민에게 치과 의료의 혜택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11	로즈클럽 인터내셔널	회원단체	로즈클럽인터내셔널은 해외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30여년 간 네팔과 필리핀, 에디오피아 등 해외 개도국에 보건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는 국제개발 비영리단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2	로터스월드	회원단체	로터스월드는 사회, 경제적 소외와 환경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아동과 주민들이 적절한 교육, 건강, 식수, 소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국제개발협력단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3	리훅	비회원단체	리훅은 취약계층에게 학문적 기초교육과 기초생활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적,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취약계층에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 사회적 회복 및 자립 지원을 도우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원 및 후원에 힘쓰며 세계 각국 및 단체와의 상호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4	밀알복지재단	회원단체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NPO입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애주기별 국내전문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15	비에프월드	회원단체	비에프월드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하여 꿈의 학교를 짓고, 해외 아동과의 결연을 통해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급식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의료 및 문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가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6	사랑광주리	비회원단체	사랑광주리는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들이 빈곤, 기아, 재난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하며 꿈꿀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리더를 양성해 복음적 평화를 이루는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7	사랑글로벌프렌즈	회원단체	사랑글로벌프렌즈(SGF)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1995년 12월 설립 허가되어 현재까지 민간 교류 차원에서 국제적 문화, 학술, 봉사, 타문화권 탐방을 통해 국제친선도모, 구제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있는 단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18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회원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기관으로서, 100년 이상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삶과 미래를 바꾸어나가는 데 앞장섭니다. 전 세계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19	아시아포커스	회원단체	아시아포커스는 방글라데시의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NGO 허가를 받아 시작되었습니다.(한국 법인 설립은 2005년) 보육원, 무료초등학교, 신속부족마을을 위한 기숙사, 여성을 위한 봉제기술교육을 실시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병원을 지어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0	아시안프렌즈	회원단체	아시안프렌즈는 사람중심의 빈곤과 환경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지역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아시아 빈곤 지역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통해 지구촌 시민의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1	아프리카미래재단	회원단체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선진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인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며 건강한 사회로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짐바브웨,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말라위, 우간다 등 총 24개 국가에서 의료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22	엔젤스헤이븐	회원단체	엔젤스헤이븐은 1959년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동복지 외에도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국제개발협력으로 나눔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사랑, 존중, 책임, 정직, 협력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해 왔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기관, 바로 엔젤스헤이븐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3	위드	회원단체	위드(Wholistic Interest Through Health, WITH)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빈곤, 가난, 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의 긴급한 필요에 대해 구호구제, 지역역량개발 및 식생활영양개선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로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4	유니월드 인터내셔널	회원단체	NGO유니월드는 2004년 '가족사랑운동본부'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시작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오던 중 2013년 사단법인 '유니월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사단법인 '유니월드인터내셔널'을 새롭게 설립하여 각 사업현장에 특화된 차별성을 가지고 지구촌이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25	지구촌구호 개발연대(GRAS)	회원단체	지구촌구호개발연대는 인도적 지원 분야 강화를 비롯, 가장 어렵고 소외된현장을 찾아가는 진정성 있는 개발협력단체 지향하며, 현장에서 내실 있는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고 성과있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주의와 개발협력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고양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6	지구촌나눔운동	회원단체	지구촌나눔운동은 개발 NGO로서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촌건설에 기여합니다. 개도국 주민들의 능력배양을 통한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지구촌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각국 시민사회의 인류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개도국의 개발과 환경, 남북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구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합니다. 정부의 원조규모나 원조정책, 시민사회와 국제개발 협력이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연구와 정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현재 세계 8개국 9개 사업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27	지파운데이션	비회원단체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국외 빈곤지역주민에 대한 자립지원과 국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설립된 국제개발협력NGO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8	캄보디아 가나안 농군학교	회원단체	캄보디아가나안농군학교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농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위해최신농업기술과지식을전파하고,현지농업인들이자립할수있도록돕는교육을제공합니다.우리의설립이념은농업의힘을통해더 나은세상을만드는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2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29	캠프	회원단체	사단법인 캠프는 필리핀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시 도시 빈민지역 타워빌과 탈락주 산소셰시 소수민족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교육, 보건, 농업, 에너지와 친환경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협력 NGO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0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회원단체	컨선월드와이드는 국제인도주의 단체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최극빈 지역의 사람들이 기아와 맞서 싸우며 스스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모두가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31	태화복지재단	회원단체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1921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입니다. 태화복지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신앙에 입각한 사회복지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국 7개의 사업기관과 1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가족,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1개의 지부를 설립하여 저소득가정과 지역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취창업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2	팀앤티	회원단체	팀앤티는 세계의 분쟁과 재난 지역으로 들어가 긴급구호와 지역개발을 통해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식수위생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NGO 팀앤티는 1999년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정부, 국제 기구, 국제 NGO와 협력하여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수지원 및 보건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3	프렌즈	회원단체	프렌즈는 나눔, 섬김,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된 국제 ngo단체입니다. 지구촌에 희망이 필요한 곳 어디나 찾아가 교육, 의료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34	플랜한국위원회	회원단체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은 1937년에 설립 후, 국적, 정치, 종교를 초월해 개발도상국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 기술교육, 인도적 지원, 성 건강과 모성보호, 청소년 참여, 아동보호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해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해 건강한 다음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5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회원단체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은 사랑과 공흥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그 가족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식수위생개선, 일차보건서비스 강화 및 보건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6	한국국제기아대책 기구	회원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국내외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아대책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웃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국내 복지, 국제구호개발,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37	한국국제봉사기구	회원단체	한국국제봉사기구(KVO International)는 1988년, 볼리비아 아마존 지역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 복지, 교육, 직업훈련, 식수개발, 경제자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의 복지, 문화, 환경을 위해 활동하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 NGO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8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회원단체	살레시오회는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동반하며 교육하는 국제 수도회입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 돈보스코성인의예해1859년에창립되어오늘날14,500여명의 회원이세계133개국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39	한국해비타트	회원단체	한국해비타트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해비타트의 한국법인으로, 1994년 시작되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지미카터특별건축사업(Jimmy Carter Work Project:JCWP)'이 2001년 한국에서 개최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가수 선 캠페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기부마라톤 '815런' 등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40	한국헬프에이지	회원단체	한국헬프에이지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자매기관으로 1982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국내외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참여나눔터 형성, 노인자조모임 지원사업,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및 긴급구호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기관들과 함께 저소득노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3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41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회원단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8년 10월 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 운동을 위해 설립하셨으며, 1996년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및 지구촌 70여개국을 대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백혈병·난치병 환우지원, 자살예방운동,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운영 중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42	함께일하는재단	회원단체	함께일하는재단은 '실업극복'이라는 사명을 안고 첫발을 내딛었던 200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전념해온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연구, 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업 및 빈곤 상황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li> <li>🏆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li> </ul>

No.	단체명	KCOC 회원여부	단체소개 <sup>1)</sup>	참여내용 <sup>2)</sup>
43	함께하는사랑밭	회원단체	<p>함께하는 사랑밭은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조명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눔을 하나씩 실천하여 나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열어갑니다.</p> <p>더불어 이러한 설립이념을 근간으로, 긴급구호 및 긴급 생계 지원, 국내외 아동 결연, 화상·난치병 치료 지원을 비롯한 보건 의료지원, 지역개발, 교육 지원, 두리모 자립 및 지역 아동 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후원과 나눔의 연결고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p>	<p>🏆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p> <p>🏆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p>
44	헤퍼코리아	비회원단체	<p>헤퍼인터내셔널은 1944년 설립 이후 지난 76년간 전 세계 125개국을 대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Teach a Man to Fish)”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헤퍼인터내셔널은 빈곤과 굶주림에 처한 지역사회 가정에 가축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투자를 통해 농업과 목축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농가가 지속가능한 생계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p>🏆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p>
45	희망의다리	비회원단체	<p>희망의다리는 아시아 개발도상지역에 사회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소외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보건의료, 교육, 구제 그리고 권익옹호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p>	<p>🏆 KCOC 자가진단 최근 3년 중 참여 1회</p> <p>🏆 2024 자가진단 성실 참여단체</p>